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테포르마시옹을 응용한  
미디어트 작품 제작

2016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보 라

데포르마시옹을 응용한  
미디어아트 작품 제작

김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예술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 전공

김 보 라

# 인 준 서

김보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 논문개요

오늘날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달은 과거의 고립되고 갇혀있는 전통적인 개념을 틀을 깨고 인간의 삶에 변명과 풍요를 제공하여 이러한 결과로 인해 현대 사회는 새로운 조형관을 창출하며 넓은 의미로는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는 예술을 창조하는 사회적인 의의에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회화에서 다양한 표현기법과 방법 등을 통하여 미술사조를 형성하며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데포르마시옹을 들 수 있다.

데포르마시옹은 작가의 감정 표현을 위한 조형적인 의도를 강조, 양식화, 풍자적인 과장 등을 위한 주관적인 왜곡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태나 비례의 파괴 등의 새로운 조형적 시도를 통한 창조가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포르마시옹의 특성과 현대 회화에 나타난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여 바디아트에서의 디자인 원리와 접목하여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로 데포르마시옹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과장, 단순화, 왜곡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현대 회화에서 나타난 대표 작가는 빈센트 반 고흐, 에드바르트 뭉크,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데포르마시옹의 특성을 바디아트 디자인 원리 중 강조, 균형, 대비로 구분하여, 페이스 페인팅 2점, 바디페인팅 3점, 총 5점의 바디아트 디자인을 계획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은 데포르마시옹의 단순화 특성을 균형감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단순화를 극대화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II는 데포르마시옹의 왜곡의 특성과 대비를 표현한 작품으로 어둡고 밝은 색의 대비를 통한 화려함과 다채로운 울동감을 나타내었다.

작품 Ⅲ은 데포르마시옹의 단순화의 특성과 인체에 특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강조하였다.

작품 Ⅳ는 데포르마시옹의 왜곡의 특성과 색감의 대비를 왜곡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Ⅴ는 데포르마시옹의 과장과 단순화의 특성에 따라 특정부분을 강조하고 다양한 색감으로 과장과 단순화가 부각시켰다.

본 연구를 통하여 데포르마시옹의 특성과 현대 회화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대표작품을 바디아트에 적용함으로써 바디아트의 다양성 있는 디자인과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폭넓고 융합된 연구를 통해 예술분야에서의 바디아트의 발전을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II. 이론적 배경 .....	3
1. 데포르마시옹 .....	3
1) 데포르마시옹의 개념 .....	3
2) 데포르마시옹의 유형 .....	5
3) 현대 회화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	17
2. 바디아트 .....	24
1) 바디아트의 개념 .....	24
2) 바디아트의 디자인 구성원리 .....	26
III. 작품제작 .....	34
1. 제작의도 및 제작방법 .....	34
2. 작품제작 .....	36
IV. 결론 .....	51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 1> 데포르마시옹의 응용하여 현대회화에 적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 .....	35
<표 2> 작품 I의 디자인 이미지 .....	37
<표 3> 작품 II의 디자인 이미지 .....	40
<표 4> 작품 III의 디자인 이미지 .....	43
<표 5> 작품 IV의 디자인 이미지 .....	46
<표 6> 작품 V의 디자인 이미지 .....	49

## 그림 목 차

<그림 1> Venusof Willendorf Man Pointing .....	14
<그림 2> Man Pointing .....	14
<그림 3> Jeanne Hebuterne in Red Shawl .....	14
<그림 4> 내란의 예감 .....	14
<그림 5> 다리 위의 소녀들 .....	15
<그림 6> 세 명의 음악가 .....	15
<그림 7> 병과 사과 .....	15
<그림 8> 춤 .....	15
<그림 9> 감자를 먹는 사람들 .....	16
<그림 10> 자화상 .....	16
<그림 11> 상처 입은 어릿광대 .....	16
<그림 12> 여인 .....	16
<그림 13> 별이 빛나는 밤에 .....	22
<그림 14> 밤의 카페 .....	22
<그림 15> 절규 .....	22
<그림 16> 마돈나 .....	22
<그림 17> 아비뇽의 처녀들 .....	23
<그림 18> Seated Woman with Wrist Watch .....	23
<그림 19> 꿈 .....	23
<그림 20> 테이블 위의 빵과 과일 .....	23
<그림 21> 가면으로 둘러싸인 예술가의 초상 .....	31
<그림 22> 콜롬비아의 방 .....	31
<그림 23> 바디페인팅의 강조 1 .....	31

<그림 24> 바디페인팅의 강조 2 .....	31
<그림 25> 우산 쓰고 가는 장례식 .....	32
<그림 26> 뷔르츠 부르그 레지덴트 교회 내부 .....	32
<그림 27> 바디페인팅의 균형 1 .....	32
<그림 28> 바디페인팅의 균형 2 .....	32
<그림 29> 나와 마을 .....	33
<그림 30> 측백나무와 별과 길 .....	33
<그림 31> 바디페인팅의 대비 1 .....	33
<그림 32> 바디페인팅의 대비 2 .....	33
<그림 33> 작품 I .....	38
<그림 34> 작품 II .....	41
<그림 35> 작품 III .....	44
<그림 36> 작품 IV .....	47
<그림 37> 작품 V .....	50

## I. 서론

21세기 현대사회는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발달과 함께 기술도 과거의 고정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현대 사회는 새로운 조형관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대중 문화 속에 뿌리를 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세기말적 형상은 조형예술에 있어서 더욱 더 다원화의 특징을 뚜렷하게 표출해 낼 수 있는 배경이 되었으며 조형작품 이미지를 통하여 억눌리고 왜곡되게 표현됨으로써 인간 자신의 표현 충동을 만족시키고 인간이 지닌 복잡하고 복합적인 내적 갈등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 내면의 감정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예술가들은 데포르마시옹 수단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활용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감각의 미적 승화에 대한 의지가 표현방법이나 기법에서 더욱더 독창적인 데포르마시옹을 가져왔다.<sup>1)</sup>

데포르마시옹은 예술적 요구에 의해 변형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형태를 의도적으로 깨뜨려 시각적 부조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 느끼는 감정을 독창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포르마시옹은 작가의 의도적인 왜곡된 변형에 의해 표현되는 주관적인 조형의지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포르마시옹의 이론적 고찰 및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특성을 분석하여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 나아가 예술로서의 바디아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예술로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조형 예술로서 바디아트의 영역과 장르를 확대하고 모색

1) 이효진 (2000), 세기말 서양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복식 50(3), p.14.

2) 김은정, 박옥현 (2012),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과 조형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2(2), p.84.

해보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바디아트 작품제작을 위한 데포르마시옹의 문헌 고찰 및 실  
증연구를 병행하여 페이스 페인팅 2점, 바디 페인팅 3점, 총 5점의 바디아트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데포르마시옹

#### 1) 데포르마시옹의 개념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은 프랑스어로 라틴어의 'déformatio'에서 유래 하였으며<sup>3)</sup>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의 어원은 'Form'의 명사형 'Formation'에 부정적 접두어인 'Dé'가 결합되어 형성된 프랑스어로 '변형(變形)', '왜곡(歪曲)의 의미<sup>4)</sup>를 가지고 있다.

데포르마시옹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물리학 측면에서는 변형이나 휘어지기를 뜻하며, 문학이나 미술에서는 보통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변형 표현해서 특수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sup>

데포르메의 일반적 의미는 본래의 형태 (形態)를 변형시킨 결과로 추정하거나 더 나쁜 형태로 개조(改造) 시킨 것을 의미하며, 모양을 수정하거나 구조를 변화를 말한다. 또한 비틀리는 상태, 구부러지거나 일그러진 형상과 같은 물체에 물리적 외력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가리킨다.<sup>6)</sup>

미술사전에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조형예술에서 자연의 대상을 변형하여 표시하는 것, 원근법, 프로포션, 미술 해부학 등의 지식을 바탕으로 형태, 공간, 양감표현을 정확히 재현하는 사실보다는 예술가의 조형의지가 중시된다. 초기 근대미술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을 강조하고 보는 자에게 강하게 호소하기 위하여 형이나 프로포션, 공간질서를 의식적으로 변형하여 독자적인 조형적 질서를 만드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sup>

3) P. Jose (1990), 초현실주의, 박순철 역 서울: 열화당, p.28.

4) 김수진 (2009), 데포르메기법을 이용한 인체변형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5) 이효진 (2000), op. cit., p.15.

6) 이윤우 (1994), 현대조각에 있어서 Déformation에 관한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6.

일반적으로 미술에서 데포르마시옹은 작가의 감정 표현을 위해 혹은 조형적인 의도를 강조하거나 양식화, 풍자적인 과장 등을 위해 사물의 자연 형태에 보다 주관적인 왜곡을 더해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의 충실한 재현을 거부하고 형태나 비례를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기법적 특징이다. 여기에는 어떤 부자연스러움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만큼 새로운 조형적 시도를 통한 창조성으로의 기대치를 높이는 부분도 있다.<sup>8)</sup>

Deformation은 기본적으로 ‘객체성’과 ‘정체성’의 부정 혹은 그로부터 이탈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상은 이미 근대의 사실주의를 부정하기 시작한 이후 모든 예술 유파들을 통해 나타난다. 세기 초 표현주의 미래주의(Futurism), 입체주의(Cubism) 등의 경우에는 보통 ‘Deformation’이라고 해왔는데 그것은 형태적 이탈과정 속에서도 기존의 참조물의 형태가 상당히 보존되고 있고 또 보존되어야만 하는 사실주의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더욱 급진적인 변형 (Transformation, Mutation의 단계로 나아가는) 들은 참조물의 보존 보다는 완전한 변질과 이탈을 드러낸다는 점이 다르다.<sup>9)</sup>

데포르마시옹은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나 조형의지에 따른 고의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속성까지도 포함하는 변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데포르마시옹은 반드시 자연 형태를 기본으로 한 그 비례와 위치를 변형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의식적, 계획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미숙한 솜씨로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그려진 어린아이들의 그림이나 원시들이 표현한 그림은 데포르마시옹이라고 말할 수 없다.<sup>10)</sup>

변형과 왜곡을 의미하는 데포르마시옹은 모방적인 조형미술을 창작 할 어떤

7) 도서출판 승례문 편집국 편(1991), 미술사전1, 서울: 도서출판 승례문, p.138.

8) 월간미술 편집국 편 (1998), 세계미술용어 사전, 서울: 월간미술, p.89.

9) 김원방 (1998), 잔혹극 속의 현대 미술, 서울: 예경, pp.331-332.

10) 월간미술 편집국 편 (1998), op. cit., p.89.

예술적 요구에 의하여 변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데포르메라고도 불리며 자연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특정 부분 또는 전체를 강조 하거나 왜곡 시켜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대상의 형태로 일부러 달리하는 기법이다.<sup>11)</sup>

데포르마시옹의 사회적 배경은 어떤 연상적인 형상의 초실재, 꿈의 무한한 힘, 그리고 이해를 떠난 사고의 유희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sup>12)</sup>

데포르마시옹의 특징은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감정과 감각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며, 회화의 선, 형태, 색채 등은 그것의 표현 가능성만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도의 균형과 아름다움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감정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무시되었으며, 예술에서의 원형과 그 표상간의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이미 알고 있는 대상에 불쾌하거나 우아한 형태 및 비례를 부여한다는, 동시적 인식에 의한 정서 반응을 감상자에게 유발시키는데 있다.<sup>13)</sup>

## 2) 데포르마시옹의 표현유형

데포르마시옹은 근대 이후 조형예술 분야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으로 복식 분야에서도 데포르마시옹은 이질적 요소의 결합, 왜곡, 변형 등을 통한 일시적 현상을 통해 공포, 재미와 혐오를 동시에 유발하는 양면적 모순 구조로 이루어진 미적개념으로 전개 된다.<sup>14)</sup> 세기말에는 시대의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상상과 기대 등으로 서양복식에서도 데포르마시옹은 인간적 삶의 내면에 있는 여러 상황들인 고독, 고달픔, 욕망, 소외, 절규 등에 이르는

11) 이윤진, 박명희 (2003), 현대의상에 나타난 유머성, 복식 53(5), p.35.

12) H. H.애너슨, 번역 김수기 외 (1991), 현대미술의 역사 1. 서울: 인터내셔널 아트 디자인, p.298.

13) H. H. 애너슨, 번역 김수기 외 (1991), op. cit., p.324.

14) 서승미 (2005), 현대예술의상에표현된데포르마송이미지복식, 한국복식학회, p.44.

은갓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근대미술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성을 강조하고 보는 자에게 강하게 호소하기 위하여 형이나 비례, 공간질서를 의식적으로 변형하여 독자적인 조형질서를 만드는 것이 성행되어 왔으며,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등의 조형적 특색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5)</sup>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눈부시게 발전한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 예술은 양적 팽창을 이루었고, 이러한 팽창은 물질 문명을 지향하는 상업주의의 집착과 지배 이데올로기를 서로 정당화 시키고 있는 사회 집단들 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일반 대중의 삶과 질에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sup>16)</sup>

예술에 있어서 데포르마시옹은 작가 내면의 주관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근대 이후 지금까지 강조되고 있다.<sup>17)</sup> 데포르마시옹은 대상의 사실적 재현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 근대 미술에 있어서 대부분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20세기 현대미술에 와서는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근대회화에서 현대회화에 이르기까지 미술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8)</sup> 따라서 근대미술 이후 예술가들은 인간의 내면 감정 표현을 위한 방법으로 감각의 미적 승화에 대한 의지는 더욱더 독창적인 데포르마시옹의 발전을 가져왔다.<sup>19)</sup>

근대 이후 데포르마시옹이 주목된 이유는 인간 해방적인 근대 문화가 개성의 자유와 자아의 주장을 극단적으로 추진하였으므로 예술에도 근대 자연주의의 사실에서 출발한 다른 여러 유형에의 자유분방한 개성적 전개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자연주의에서 인상주의에의 유형전개, 또는 표현주의, 일부의 포비즘, 입체주의, 구성주의, 초현실주의 등 사실에

---

15) 도서출판 승례문 편집국 편 (1991), op. cit., p.138.

16) 박성봉 (1994), 대중예술의 이론들. 서울: 동연, p.69.

17) 김화영 (2009), 데포르마시옹을 통한 인체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18) 이지연, 조진숙 (2011), 모스키노 컬렉션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9(3), p.495.

19) 안연희 (1999), 현대미술사전, 서울: 미진사, p.96.

의거한 모든 유형 대립이 여기에 나타나며, 데포르마시옹의 다양한 기법이 두드러지게 되었다.<sup>20)</sup>

예술작품에서 신체를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현상은 신체적 일탈을 통해 기존의 규범적인 것을 부정하고 일상적인 맥락에서 일탈하여 합리적인 주체로 인식하던 신체이미지를 변형하거나 분열 또는 분절시키는 것으로 이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동시에 쾌감을 표현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현대예술에서의 데포르마시옹 신체의 이미지는 남성보다 여성에 있어 의도적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기존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의 소외, 억압으로 인한 것으로 여성의 신체 왜곡을 통해 여성이란 열등하고 억압당하는 존재가 아닌 내재된 힘과 가능성을 지닌 위협적인 존재로 표현하게 된다.<sup>21)</sup>

데포르마시옹은 일반적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이지만, 다양한 표현 특징에 의해 다른 예술적 형태로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특징을 살펴보면, 김문경(2004)<sup>22)</sup>의 연구에서는 단순화, 과장, 기형화, 절단 등으로 이정숙, 윤재은(2008)<sup>23)</sup>의 연구에서는 과장, 단순화, 왜곡 등으로 김화영(2009)<sup>24)</sup>의 연구에서는 단순화, 과장, 기형화, 절단 등으로, 김은정, 박옥현(2012)<sup>25)</sup>의 연구에서는 왜곡, 과장, 착시, 단순화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포르마시옹의 공통된 특징으로 과장, 단순화, 왜곡으로 도출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20) 교육포털 카페, E.T, Daum cafe.

21) 서승미 (2005), op. cit., p.43.

22) 김문경 (2004), 데포르메 기법을 이용한 도자설치 작품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23) 이정숙, 윤재은 (2008), 디지털건축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공간특성, 한국기초조형학 연구 9(5), p.477.

24) 김화영 (2009), op. cit., p.20-21.

25) 김은정, 박옥현 (2012),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과 조형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 12(2), pp.85-86.

## (1) 과장

과장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상황을 현실보다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표현 하는 것으로<sup>26)</sup> 과장의 데포르마시옹은 주로 대상의 형태나 부피를 크게 하거나 길이를 늘려 변형하거나 비정상적으로 확대시킨 형태로 표현되어 서술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과장의 데포르마시옹은 의도적으로 대상의 균형과 질서를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비례감과 입체감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켜 시각적인 강렬함과 의외성을 유발하고 있다.<sup>27)</sup>

과장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내는 것<sup>28)</sup>으로 물체의 형상이나 구조를 극대화하여 사실주의 회화나 조각에서처럼 물체의 형태나 색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미의식을 통하여 원형을 강조,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9)</sup> 주로 형태의 들출이나 팽창, 크기의 확대나 축소, 길이의 신장이나 단축, 면의 확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고유의 비례관계가 깨짐으로 인해 특이하거나 강조된 형태를 갖게 된다.<sup>30)</sup> 이는 대상의 형태를 파괴적, 흥미롭게 전달하면서 보는 이들에 시각적인 집중력을 강조하며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림 1>과 같이 과장의 예로 여성의 인체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생식기나 유방 두분 등을 과장하여 강조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크기의 확대에 의한 과장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그림 2>는 작품에서 인체는 비정상적인 길이의 과장

26) 양철우 (2015), 새 국어 사전, 서울: 교학사, p.172.

27) 윤영범 (2015), 사진, 회화, 그래픽디자인의 이미지 구성과 데포르마시옹3,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p.23.

28) 한갑수 (1999), 국어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p.560.

29) 이기열 (2007), 현대패션의 과장된 인체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연구, 8(1) p.401.

30) 서승미 (2005), op. cit., pp.38-50.

31) 김화영 (2009), 데포르마시옹을 통한 인체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21.

을 통해 변형 되었는데 이처럼 굳어지지 않고 뼈대만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고독과 상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조형의지를 더욱 부각시킨다 그는 전적으로 자신의 시각에만 의존 하여 지각된 대상의 실재를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는 20세기의 서구이성이 직면한 불안과 위기의식 전쟁, 소외, 고독, 인간, 상실감 등의 인간 상황을 하나의 전체로 제시함<sup>32)</sup>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한 진실을 찾고자 노력한 것이다.<sup>33)</sup>

이러한 과장의 예시에 나타난 데포르메는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나 돌, 점토 등에 주로 나타난 여자의 신체에는 생식기나 유방 혹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들을 주술적 목적에서 단순화 되거나 강조<sup>34)</sup>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딜리아니의 작품 <그림 3>은 머리와 몸은 유난히도 긴 목에 의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과장된 긴 목은 여인의 조용하고 깊은 서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여인의 목은 실제보다 크게 과장되어 데포르마시옹으로서 이러한 과장적 변형은 동일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비례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특이한 표정이나 강조된 동작과 형태를 갖추게 된다.<sup>35)</sup>

또한 달리의 작품에서는 기형적 형과 과장 및 왜곡 등을 통해 대상을 변형시킴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영상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인간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비합리적인 감정이나 잠재의식, 환상, 공상을 새로운 표현기법을 통해 표출함으로서 현실을 초월<sup>36)</sup>하려 한다. (그림 4)

---

32) 권경숙 (2009), Not I 와 오브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33) 김화영 (2009), op. cit., p.21.

34) 김문경 (2004), 데포르메 기법을 이용한 도자설치 작품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35) 박연도 (1964), Deform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3.

36) 김문경 (2004), op. cit., p.13.

## (2) 단순화

단순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실적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복잡한 그림을 생략 하는 것<sup>37)</sup>으로, 사물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주로 사물의 구성요소들을 생략하거나 축소시켜 최소화된 기본적인 형태로 표현된다.<sup>38)</sup>

단순화의 데포르마시옹은 입체주의 회화와 미니멀리즘 예술가들의 작품 그리고 추상회화를 통해 기하학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색상과 오브제를 최소화하면서 대상이 갖는 구성 요소들을 최소화시켜 본질을 탐구하는 구조로 나타나면서 직관적인 특성을 드러낸다.<sup>39)</sup>

바트(Kart Badt)는 조형예술에 있어서 단순성을 ‘통찰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본질에 예속시키는 가장 현명한 정돈상태<sup>40)</sup>라고 정의 하였다.

예술에 있어 ‘단순화’란 작가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되게 만드는 것으로 써, 대상 그 본연의 복합성(複合性)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간결한 표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는 모든 인지(認知)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작가의 고의적인 의도에 의한 시각적인 단순화를 의미 한다.<sup>41)</sup>

이러한 데포르마시옹의 특징은 몽크의 <그림 5>와 같이 강렬한 색채의 처리와 빛, 명암 관계를 조화 있으면서도 대담하게 나타낸 것은 상당히 명쾌한 느낌을 준다. 또한 선명한 색 감각을 발휘하고 원근법을 강조하였으며 비스듬히 놓여진 다리와 난간에 나란히 서 있는 소녀는 단순화의 형태를 보이며, 동감(動感)과 리듬을 화면에 도입시켜 구성하고 있다. 몽크는 자연을 주관적 분위

37) 민선식 (2010), 엘리트 국어사전, 서울: YBM, p.522.

38) 김은정, 박옥련 (2012), op. cit., p.86.

39) 윤영범 (2015), op. cit.,p.24.

40) R.아른하임 외 1명, 김춘일 역 (1982), 미술과 시지각, 서울: 흥성사, p.6.

41) 김화영 (2009), op. cit., p.7.

기에 의한 반영하고, 낭만적인 자연 속의 인간의 무의미를 투영하려 했으며 곡선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필세는 간명한 것이 특징이다.<sup>42)</sup>

<그림 6>의 피카소의 작품은 대상을 기하학적 평면으로 단순화하여 사물을 직선으로 나누고 세모나 네모 등으로 재구성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특히 구성의 조화를 위해 갈색, 녹색, 회색 중심의 단색조를 사용하여 단순한 정물이나 인물의 회화를 소재로 선택했다.<sup>43)</sup>

또한 <그림 7>과 같이 자연의 형체를 주관적으로 표현하여, 근대회화가 객관적인 사생(寫生)으로부터 주관적인 감각의 표현으로 나가게 된 계기를 주었다. 그는 대상을 빛에 따른 명암표현에서 벗어나 물체의 가능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주요한 요소로 압축시켜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로 집약시켰다.<sup>44)</sup>

<그림 8>은 형상의 윤곽선을 단순화시키고, 사용된 색채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차분하고 시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무희들이 만드는 원형의 구도는 관람자들을 자연의 순환리듬으로 끌어들이는다.<sup>45)</sup>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은 강렬한 원색과 단순화된 육체뿐인데 여체들은 비너스의 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생명력을 발산한다. 생명의 에너지와 기쁨을 찬미하며 문명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듯 느껴진다.<sup>46)</sup>

### (3) 왜곡

왜곡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sup>47)</sup>으로 예술

---

42) <http://mission.bz/10270>

43) 윤영범 (2015), op. cit., p.72.

44) 김문경 (2004), op. cit., p.10.

45) 김효영 (2007), 아메데오 모델리니 회화연구 인체의 데포르마시옹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2.

46) 정은미 (2002), 화가는 왜 여자를 그리는가, 서울: 한길아트, p.212.

47) 성낙양 (2012), 동아 참 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p.1099.

에서 원형과 그 표상간의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 하거나 그릇 되게 표현 되어지는 것이다. 왜곡이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부터이며 왜곡이 감정 이입의 기법에 의해 정당화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개념적 모호성으로부터 왜곡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sup>48)</sup> 왜곡은 사물이나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비정상적이고 부조화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주로 특정 부위의 생략이나 반복, 디자인인 요소의 위치나 형태의 기능변경, 부분과 부분을 모순되게 결합하는 등 기형화된 형태로 표현된다. <sup>49)</sup>

대상의 형태를 휘거나 비틀린 형태로 변형하고 왜곡하는 데포르마시옹은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에 의해 개척되었다. 이들은 대상이 지닌 고유의 형태를 모순되게 결합하거나 새로운 형상으로 재구성해 왜곡하면서 대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변형된 이미지를 통해 거부하고 일탈을 표현하여 상상력과 흥미를 유발하며 시각적 자극을 일으킨다. 데포르마시옹은 유의도적으로 대상을 이질적인 요소와 대립시키거나 다양한 이미지를 차용하여 해체시키고 조합하는 탈구성적 형태로 나타나는 유희성을 보여준다.<sup>50)</sup> 이는 대상이 갖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므로, 보는 이에게 낯설음과 시각적 모호함이 전달되어 심리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표현기법이다.<sup>51)</sup>

시각예술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기괴성은 대상의 기형적인 변형이나 혐오스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되었으며 시각적인 역설을 통해 본질을 찾고자 하는 개념적인 의도를 독특하게 표현하는 시도로서 이루어졌으며,<sup>52)</sup>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9>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경도되어 부자연스럽고 경직된 그림을 그렸고, 아카데미적인 스케치를 대한 불만과 사진의 부적합성에 불만

---

48) 월간미술 (1996),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p.295.

49) 김은정, 박옥련 (2012), op. cit., p.86.

50) 윤영범 (2015), op. cit., p.25.

51) 김은정, 박옥련 (2012), op. cit., p.86.

52) 윤영범 (2015), op. cit., p.25.

을 가지고 인물을 왜곡시켰다.<sup>53)</sup> 또한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 10>은 자화상에서 풍자적인 얼굴을 동적인 붓놀림으로 비틀린 거울에 얼굴이 비친 것처럼 극단적으로 일그러뜨려 왜곡 시켰다. 그에게 있어 얼굴은 재현적 묘사가 아닌 자신의 인간상을 다루는 특징을 남김없이 보여주며 인간의 상황에 관한 깊은 상처와 결합이 집약된 것<sup>54)</sup>이라고 할 수 있다.

조르주 루오의 <그림 11>은 상처 입은 가족 중의 한 사람을 두고 서로 위로하는 장면이다. 생활의 고통을 나누려는 표정은 무한한 인산의 사랑을 말하고 있으며, 두껍고 검은 선으로 구획 지어진 풍부한 색채의 조각들 즉, 분절된 각 부분과 마디들, 머리, 팔, 다리, 가발, 유리 눈 들은 왜곡되고 재조립 될 수 있는 특질을 가지는 데포르마시옹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sup>55)</sup>

여인을 왜곡된 인체의 표현으로 자유롭고 광란적인 붓질로 격정적인 형상을 표현한 <그림 12>는 형상을 재현하지 않고 인체에서 찾을 수 있는 격렬함과 폭력성을 붓질의 과정으로 제시한다. 드 쿠닝은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인물의 형태를 평면화 하기 시작하여 점차 대상을 해체해 나갔다.<sup>56)</sup>

위와 같이 데포르마시옹의 대표적인 표현 방법들과 함께 선행 작가들의 사례 외에도 굴절, 투시, 질감, 색채 등에 의한 다수의 변형 방법이 있으며, 특히 기술력이 강화된 오늘날에는 그 표현들이 더욱 복잡성을 띠며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데포르마시옹의 방법은 결코 단순한 이론만이 아닌 숙련된 기술과 감각이 함께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57)</sup>

---

53) 김민아 (2011). 빈센트 반 고흐 회화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p.22.

54) 이정숙 (2008), op. cit., p.477.

55) 윤영범 (2015), op. cit., p.25.

56) 김문경 (2004), op. cit.,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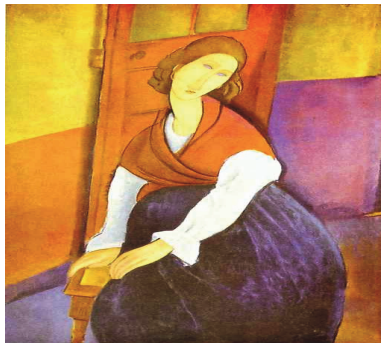
57) 김화영 (2009), op. cit., p.15.



<그림 1> 작자미상  
「Venus of Willendorf」, 1909  
([http://www.psykoweb.dk/Selvopfat\\_telser/Selvindsigt4.htm](http://www.psykoweb.dk/Selvopfat_telser/Selvindsigt4.htm))  
(검색일.2015.9.16)



<그림 2> 알베르토 자코메티  
「Man Pointing」, 1947  
(<http://www.insight.co.kr/article.php?ArtNo=4713>)  
(검색일.2015.9.16)



<그림 3> 모딜리아니  
「Jeanne Hebuternein Red Shawl」, 1919~1920  
(영혼의 부딪힘, 2014, p.147)



<그림 4> 살바드로 달리  
「내란의 예감」, 1936  
(미술양식의 역사, 1999, p.89)



<그림 5> 에드바르트 뭉크  
「다리 위의 소녀들」, 1900  
(<http://mission.bz/10270>)  
(검색일.2015.10.2)



<그림 6> 파블로 피카소  
「세명의 음악가」, 1921  
(<http://www.jinjuart.co.kr>)  
(검색일.2015.10.15)



<그림 7> 세잔느  
「병과 사과 바구니가 있는 정물」,  
1890~1894  
(<http://art.khan.kr/93>)  
(검색일.2015.10.15)



<그림 8> 마티스  
「춤」, 1909  
(서양화 감상법, 1994, p.94)



<그림 9> 빈센트 반 고흐  
 「감자를 먹는 사람들」, 1885  
 (<http://arthurjung.tistory.com/58>)  
 (검색일.2015.9.2.)



<그림 10> 프랜시스 베이컨  
 「자화상」, 1966  
 (<https://blog.aladin.co.kr>)  
 (검색일.2015.9.2.)



<그림 11> 조르쥬 루오  
 「상처입은 어릿광대」, 1932  
 (<http://m.blog.daum.net/yagwanmon/16506904>)  
 (검색일.2015.9.30.)



<그림 12> 빌렘데쿠닝  
 「여인」, 1950  
 (미술양식의 역사, 1999, p.92)

### 3) 현대 회화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현대 회화의 대표화가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모델리아니(Amedeo Modigliani), 폴 세잔느(Paul Cézanne),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에드바르 드 뭉크(Edvard Munch),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 중 데포르마시옹의 특성이 두드러진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에드바르 드 뭉크(Edvard Munch),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의 작품을 중심으로 데포르마시옹 특성인 과장, 단순화, 왜곡 등을 근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는(Vincent van Gogh, 1853-1890) 1881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1890년 7월 자살로 삶을 마감할 때까지 강렬한 색채와 거친 붓놀림으로 800점 이상의 유화와 700점 이상의 데생을 그렸다.<sup>58)</sup>

고흐는 예술보다 인간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자연과 인간이라는 실체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의 구원의 열망을 그림으로 구체화하고자 했다. 그는 ‘회화는 예술가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믿었다. 고흐의 그림은 격렬한 붓질과 강렬한 색채 표현 그리고 왜곡된 형태를 특징으로 한다.<sup>59)</sup>

또한 고흐의 말기 작품은 색채의 터치가 동시에 필치가 되며 선이 된다. 즉 하나 하나의 선에 최대한 표현력을 부여하고 있다. 고흐의 선은 전 화면이 울동성을 띄며 풍부한 리듬을 형성하고 형태가 맞붙어 힘차게 양감을 표현하는 터치를 주는 것이다.<sup>60)</sup>

58) H.안나수 (2007), Vincent van Gogh-A Self-Portrait in Art and Letters, 서울: 생각과 나무, p.6.

59) 윤영범 (2015), op. cit., p.32.

60) 이진 (2001), 빈센트 반 고흐작품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품인 <그림 13>은 두터운 붓놀림과 어둡고 밝은 색의 대비를 통한 밤하늘이 요동치는 표현은 자신의 격앙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였다.<sup>61)</sup> 정열적인 형태와 격렬한 색조는 고흐의 심리상태와 내면을 표현한 것으로, 고흐가 창조한 색과 형태의 데포르마시옹은 그의 심상을 자연 속의 실재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었으며 이는 형태가 아니라 고흐가 지닌 열정의 미메시스이며 데포르마시옹<sup>62)</sup>이라 할 수 있다.

고흐는 점점 더 대상에서 벗어나 화가의 주관적 느낌을 도드라지게 그리며 <그림 14>와 같이 원근법이 과장되어 나타났다. 천정에 매달린 전등의 노란 불빛은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흐릿하게 묘사된 카페 안의 사람들, 그리고 두꺼운 물감의 터치 등으로 불안정한 묘사와 비현실적인 왜곡, 현실과 달리 보이는 색채의 사용을 통해 고흐 자신의 정서적 동요를 반영하고 있다<sup>63)</sup>고 볼 수 있다.

## (2) 에드바르트 뭉크

에드바르트 뭉크는(Edvard Munch, 1863-1944) 노르웨이 태생으로서 북구 화가들 중에 누구보다도 강한 개성과 독창력으로 세기말 인간의 자각과 내면 세계를 조명한 화가이다.<sup>64)</sup>

독일 표현주의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 뭉크 회화의 표현주의적 성격은 무엇보다도 인물표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인물표현은 주로 자화상으로 나타난다. 그에게 있어 자화상 시리즈는 삶과 죽음과의 싸움 속에서 죽음을 하나의 관념으로 확대하여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나타낸다. 이때 생을 향

---

위논문, pp.19-20.

61) 서현호 (2015), 표현주의적 회화의 특성과 표현방식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p.26.

62) 윤영범 (2015), op. cit., p.32.

63) 이진 (2001), op. cit., pp.19-20.

64) 김영나 (1996), 서양 현대미술의 기원, 서울: 시공사, p.89.

한 불안의 극복의문제가 대두되며, 이 문제는 전 생애를 통해 자기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면모의 내용을 시사한다.<sup>65)</sup>

몽크의 특유의 이미지는 왜곡이나 형태의 대조, 구불거리는 곡선의 그림은 19세기에 제작된 판화 가운데에서 중요한 업적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sup>66)</sup>, 질투, 관능적인 욕망, 고독, 같은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왜곡되고 과장된 형태와 색채를 사용하였다.<sup>67)</sup>

몽크의 초현실주의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은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에 나타난 환상, 꿈, 악몽 등을 일상적인 것을 낯설어 보이게 변형시키는 것으로,<sup>68)</sup> <그림 15>와 같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면서, 마치 정경 전체가 그 외침소리의 고통과 흥분에 가담하여 소리 지르는 사람의 얼굴은 만화처럼 왜곡<sup>69)</sup>시켜 자신의 고통과 흥분을 강렬한 원색바탕과 거친 터치, 대담한 형태의 변형으로 과장되게 데포르메 시켜, 자신의 병적인 근심과 심리적 긴장을 주관적 반응으로 나타냈다.<sup>70)</sup>

또한 <그림 16>은 여인은 성을 갈망하는 눈길로 남성 또는 관람자를 바라보며 그 남자를 유혹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한다. 몽크 자신은 이 그림에서의 사랑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몽크는 작품에서 다른 상징주의자들처럼 모호하고 베일에 싸인 신비로움을 강조하기 보다 직접적이고 강렬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여지없이 노출시켜<sup>71)</sup> 왜곡되고 변형된 데포르마시옹을 부각시켜 표현하였다.

---

65) 정미희 (1990), 독일 표현주의 미술, 서울, 일지사, p. 156.

66) 김영나 (1996), op. cit., p.93.

67) Strickland, Carol, 김호경역 (2001),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2001.

68) 김은정, 박옥련 (2012), op. cit., p.86.

69) 이정숙 (2008), op. cit., p.477.

70) 김은정, 박옥련 (2012), op. cit., p.86.

71) 김영나 (1996), op. cit., p.92.

### (3) 파블로 피카소

피카소는(Pablo Ruiz Picasso, 1881-1973) 스페인에서 태어나 당시 예술 공예 학교 교사였던 부친의 영향을 받아 천부적 재질을 발휘하여 1973년 사망당시 까지 그가 남긴 작품은 그림, 판화, 조각, 콜라주 등을 통틀어 20,000여점이 넘었다. 그는 일생의 대부분을 파리에서 보냈지만 그의 타고난 스페인적 환상, 우수, 보수성, 전위정신 등은 그의 예술을 끊임없는 변화와 파괴의 연속으로 이끌었으며, 이것은 조형질서의 혁명과 고전에의 집념이라는 야누스적 모순을 꾸준히 실천에 옮겨가는 원동력이 되었다.<sup>72)</sup>

피카소는 이렇게 천부적 재질을 바탕으로 그의 스페인적 기질을 다양한 변모를 시도하는 성격으로 그의 생존당시 모든 환경적 요소가 그를 20세기 미술의 거장으로 이끌었다.<sup>73)</sup>

<그림 17>의 아비뇰의 처녀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대상을 다각도에서 본 후 이를 조각처럼 나누어 한 화면에서 배열을 하였는데 이러한 구성을 통해 주요 모티브인 5명의 여인들은 평면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단순화되어 엄격하고 조각적인 요소를 보인다. 인물 묘사에서 심리학적 요소는 배제되었으며, 이러한 생략은 형태의 단순화와 양식화를 통해 표현<sup>74)</sup>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8>는 작품의 대상을 입체적 공간으로 나누어 직선의 대담한 응용에 의해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원색을 칠하여 자연을 재구성하였다. 자연과 인체의 Form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화시키고 분석 결합하여 다른 유기적인 형태로 추출한 것<sup>75)</sup>으로 데포르마시옹의 특성을 부각시켜 표현한 것

72) 정계옥 (1987). 파블로 피카소의 회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

73) 김지미 (1990). 피카소 작품을 주제로 한 의상디자인 -도예에 나타난 그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

74) 이정숙 (2008). 디지털 건축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공간 특성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7.

75) 김수진 (2009). op. cit., p.10.

으로 사료된다.

테포르마시옹의 왜곡된 형태가 드러나 있는 <그림 19>는 자연스러운 형태를 의도적으로 바꾸거나 과장하고 있다. 왜곡은 정서적인 반응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시도되기도 하고 주제에 따라 디자인의 어떤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sup>76)</sup>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아 상상과 황산적인 공간을 표현하고 큐비즘의 영향으로 형태를 왜곡시켜 표현하였다.<sup>77)</sup>

이외에도 모든 대상이 원통, 원추, 구 등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환원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정면에서 본 탁자를 표현한 그림에서는 탁자의 아래쪽은 볼 수 없었다. 그런데 피카소는 탁자의 밑면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렸다. 이렇게 해서 피카소는 시선의 각도라는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것<sup>78)</sup>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0)

---

76) 데이비드A.라우어 외 1명, 이대일역 (2002), op. cit., p.140.

77) 위수연(2005), 피카소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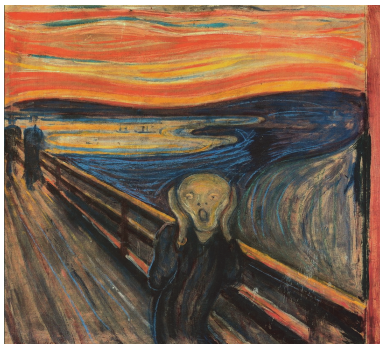
78) <http://mission.bz/m42/10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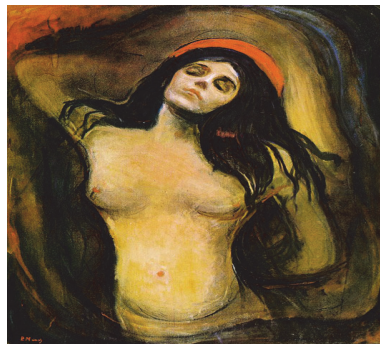
<그림 13> 빈센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1889  
(<http://artntip.com/259>)  
(검색일.2015.9.30.)



<그림 14> 빈센트 반 고흐  
「밤의 카페」, 1888  
(<http://mission.bz/>)  
(검색일.2015.9..30.)



<그림 15> 에드바르트 뭉크  
「절규」, 1893  
(미술양식의 역사, 1999, p.80)



<그림 16> 에드바르트 뭉크  
「마돈나」, 1895-1898  
(<http://mission.bz/10270>)  
(검색일.2015.10..1.)



<그림 17> 파블로 피카소  
 「아비뇰의 처녀들」, 1907  
 (서양화 감상법, 1994, p.100)



<그림 18> 파블로 피카소  
 「Seated Woman with Wrist Watch」, 1932  
 (<http://mission.bz/m42/10288>)  
 (검색일.2015.9.21.)



<그림 19> 파블로 피카소  
 「꿈」, 1932  
 (<http://mission.bz/m42/10288>)  
 (검색일.2015.9.21)



<그림 20> 파블로 피카소  
 「테이블 위의 빵과 과일」,  
 1908-1909  
 (<http://mission.bz/m42/10288>)  
 (검색일.2015.9.21)

## 2. 바디아트의 개념

### 1) 바디아트의 개념

바디아트(Body art)란 상흔, 문신, 채색, 제거, 변형등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얼굴과 신체에 물감을 칠하거나 염색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장식미를 추구하는 예술을 의미한다.<sup>79)</sup> 여기에서 장식은 옷이나 보석, 몸에 직접 그린 그림 및 몸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표현을 말한다.<sup>80)</sup>

바디아트라는 용어는 1960년대 말 개념미술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개념미술의 바탕이 되는 필수적인 이념인 개념(concept)과 실행(process)이라는 두 명제를 전제로 다양하게 전개된 미술양식이다. 이중 프로세스 아트 (process art), 대지 미술(Land art, Earth art)에 나타나는 신체를 이용한 일부 형식들과 신체를 표현하는 매체나 주제를 다루는 작업을 지칭한다.

사회·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바디아트는 인체의 그 자체를 예술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현대 미술 흐름 속에서 인간의 행동과 몸짓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신체미술로 발전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게 되었다.<sup>81)</sup>

얼굴의 전체나 일정한 부위만을 페인팅 하여 축제나 이벤트 등에 주로 사용되는 페이스 페인팅과 주로 어깨 윗부분을 위주로 주제에 맞게 상상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판타지 메이크업 그리고 모든 시각적인 요소들을 접목하여 미술적 측면에서의 디자인과 색채뿐 아니라 신체의 구조나 곡선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여 표현할 수 있는 인체를 대상으로 표현하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바

79) 김현진 (2014),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3.

80) 이인자 (1988), 복식 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p.49.

81) 최경옥 (2009),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9.

디 페인팅으로 나눌 수 있다.<sup>82)</sup>

따라서 바디아트란 신체를 바탕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표현수단이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의 이르러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의미로 직·간접적인 표현방법을 통한 전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sup>83)</sup>

즉,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어떤 일정한 재료와 양식, 기교 등을 사용하여 미를 창조 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이나 산물이며 인간의 신체를 형상화하는 조형 예술의 분야의 하나로 인간의 몸이 예술의 행위자인 동시에 표현의 재료로써 나타나는 예술형태이다.<sup>84)</sup>

최근 바디아트는 인간의 신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함으로써 예술성을 추구하고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창조활동이자, 기존의 일반적이고 정형화된 채색에서 탈피한 표현의 도구이자 수단이 되었다. 이미지를 표현함에 있어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재와 재료 면에서 새로운 시도와 표현을 통하여 조형적 특징을 부각시켜 그 표현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바디아트는 인간의 신체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공간적인 감각과 시각적인 감각을 표현하는 4차원의 공간 표현의 조형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sup>85)</sup> 또한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접목하여 환상적인 면과 예술적인 면을 가지고 한층 높은 차원의 개념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미에 대한 창조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분야로 다양한 주제와 재료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발전 무궁한 예술의 한 장르<sup>86)</sup>라 할 수 있다.

---

82) 김양은 외 3인 (2009), ART-MAKE-UP, 서울: 광문각, p.11.

83) 최경옥 (2009), op. cit., p.28.

84) 한명숙 (2005), op. cit., p. 9.

85) 태동숙 (2011),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0.

86) 김민정(2010), op. cit., pp.8-9.

## 2) 바디아트 디자인의 구성원리

조형예술은 기본적으로 시각예술이기 때문에 시각적인 명시성은 매우 중요하다. 예술가는 자신이 작업한 작품을 감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각 언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예술의 기본 조형요소를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요소들이 배치된 작업 구성의 원리를 '조형원리'라 한다. 미적 형식 원리에는 반복(repetition), 비례(proportion), 변화(variety), 균형(balance), 대칭(symmetry), 대조(contrast), 리듬(rhythm), 조화(harmony) 등이 있다. 이러한 원리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다의적 의미로 해석된다.<sup>87)</sup>

바디아트 디자인을 위해서는 이러한 디자인의 구성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조형예술의 의미소통 체계에 많은 기여를 하는 기초디자인을 위한 이미지 발상의 기본적인 원리<sup>88)</sup>를 토대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포르마시옹의 과장, 단순화, 왜곡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강조, 균형, 대비의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강조

전체적으로 기초(background)를 이루는 구성 속에서 주변과 차별화 되는 형태, 색채, 크기 등의 시각요소를 사용함으로써 화면에 변화를 주고, 특정 정보를 강조할 수 있다.<sup>89)</sup>

강조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87) 윤민희(2008),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서울: 예경, pp.93-94.

88) 윤민희(2008),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서울: 예경, pp.93-94.

89) 정은주 (2001), 조형적 원리에 의한 웹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2-13.

하는 것으로, 디자인에 있어서는 조형요소 중 서로 달라보이게 하는 원리 중 하나이다. 강조란 어떤 주변조건에 따라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게 하여 변화를 주는 요소이다. 이것을 전체적 통일감을 얻기 위한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때에 따라서 강조를 재확인 시켜 주거나 강조할 때 쓰이는 원리이다. 강조의 방법으로는 검게 하든지, 희게 하든지, 주목성과 명시도가 높은 색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sup>90)</sup>

보통 강조는 그림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초상화처럼 단순한 구성에서는 초점이 명확한데, <그림 21>과 같이 왜곡된 표현주의적 형태들로 이루어진 그림 속에서 하나의 자연주의적인 이미지는 그 색다른 스타일 때문에 눈길을 끈다.<sup>91)</sup>

또한 <그림 22>는 대개의 것들이 비슷한 크기일 때 비슷한 형태이면서도 의외로 작은 것들은 중요해 보이며, 대비의 의한 강조를 이루어 내는데 흔히 사용되는 요소<sup>92)</sup>에 강조점을 둔다.

바디아트로 표현된 <그림 23>은 얼굴 중앙에는 화이트 페인트를 삼각형으로 바르고 눈 주위에만 블랙을 발라 눈매를 강조하여 흑백의 대조에 의해 혐오스러운 느낌을 표현했다.<sup>93)</sup>

또한 <그림 24>는 점, 선, 면, 색을 사용함으로써 직선의 강하고 기하학적 느낌과 곡선의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환상적인 느낌을 나타 낼 수 있다. 특히 선은 강하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테크닉 또한 강조 할 부분이다.<sup>94)</sup>

---

90) 김소형 (2012), 조형원리에 따른 패션쇼 무대디자인의 공간구성 표현특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91) 데이비드A.라우어 외 1명, 이대일역 (2002), 조형의 원리, 서울: 예경, p.48.

92) Ibid., p.48.

93) 최미라 (2004),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추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0.

94) 김영숙, 김영숙 (2003),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4-15.

## (2) 균형

균형(Balance)은 조형예술 표현에서 안정감을 결정해주는 조형요소이다. 균형이란 한 구조물에서 모든 힘들이 평형이나 균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힘의 분산’을 말한다. 조형예술에서 시각적 균형이란, 하나의 시지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은 대칭적 균형과 비대칭적 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형예술 표현에서의 균형은 형태, 크기, 색채, 질감, 방향 등의 면에서 나타난다. 비대칭적 균형으로는 완벽한 대칭은 아니더라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존재하는 균형, 또는 평형상태의 무게에 의한 균형, 대비에 의한 균형 등이 있다.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조형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상자에게 불안감을 주게 되므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의 영역에서는 지양해야 한다. 각 공간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균형이 잘 이루어졌을 때, 디자인은 안정감을 갖게 되고 시각적 명시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95)

이러한 명시성의 예로 <그림 25>와 같이 화면에서 시각적인 무게감의 분배, 즉 균형감의 분배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몰려 있는 반면에 왼쪽은 비어있고 대각선 모양으로 이어진 장례행렬은 대각선형의 빗줄기와 미묘한 균형감을 자아내어 자연스럽게 보인다.96)

또한 <그림 26>은 대칭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벽감과 난간, 원주(圓柱), 그리고 조상(彫像) 등이 통일성을 가지면서도 대칭을 이루고 있는 대단히 화려한 건물97)로 표현하고 있다.

바디아트로 표현된 균형감은 <그림 27>과 같이 똑같은 구성 요소들이 균형감 있게 눈 주변에 블루계열의 색채와 면의 디자인 요소를 한층 부각시킨

95) 윤민희(2008), op. cit., pp.99-100.

96) 데이비드A.라우어 외 1명, 이대일역(2002), op. cit., p.77.

97) Ibid., p.81.

대칭의 정적 균형으로 통일감은 있으나 단조로움과 딱딱한 느낌이 든다.<sup>98)</sup> 또한 얼굴에서 시작한 구성요소들이 머리 위의 오브제에 데포르마시옹의 조형 기법의 과장으로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바디의 굴곡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시각적으로 안정감 돋보이며 균형감 있게 표현하였는데, 특히 몸의 굴곡으로 인해 색감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나타내어주며 데포르마시옹의 과장의 표현기법을 새로운 시도로 조형성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8)

### 3) 대비

형태, 크기, 색채, 공간 사용 등 시각요소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시각 충격효과에 의한 생동감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비는 여러 가지 조형원리 중에서도 시지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sup>99)</sup>

시각예술에서 대비는 서로 반대되는 이중적인 표현이나 상반된 요소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난다. 대비는 두 개 이상의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시각적인 대립으로, 시각적 흥미 긴장감 강조 등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대비의 종류에는 형태의 대비, 크기의 대비, 색채의 대비, 질감의 대비, 방향의 대비, 위치의 대비, 공간의 대비 등이 있다. 조형표현에서 형태의 대소(大小), 장단(長短), 명암의 강약과 같은 정반대의 분량과 성질을 대립시키면, 서로 다른 성질의 상호 간에 긴장감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비의 결과로 큰 것은 한층 더 크게 작은 것은 더욱 작게 보인다든지, 밝은 것은 더욱 밝게 어두운 것은 더욱 어둡게 인식되는 효과가 있게 된다. 대비에 의해 형태의 대조, 날카로운 기하학적인 선과 자유로운 곡선의 대조, 명암의 대조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통

98) 안나현(2014), 디자인원리를 적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감성이미지 표현, 서경대학교 대학원미용예술학과, 박사학위논문, p.48.

99) 정은주(2001), op. cit. p.13.

하여 밝음, 어두움, 흑백, 원근 등의 상반된 성격이 표현된다. 대비에 의하여 나타난 시각적 표현은 단순한 조화에 비하여 보다 극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너무나 이질적인 구성요소의 대비나 또는 극단적인 대비는 대비의 효과를 약화 시킬뿐더러 자칫하면 산만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줄타기를 하는 곡예사와 같이 시각적 대비의 표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sup>100)</sup>

형태와 색채의 대비를 잘 나타낸 <그림 29>는 신선하고 강렬한 색채로 현실을 초월한 몽환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기형적 형과 과장 및 왜곡 등을 통해 대상을 변형시킴으로써<sup>101)</sup> 무의식적인 세계를 형상화 하고 있다.

또한 <그림 30>은 대담한 원색 대비가 다시 나타나고 추상성마저 띠고 있으며,<sup>102)</sup> <그림 31>의 바디아트는 전체적으로 색감의 대비를 잘 나타내어주고 있는데 흰색, 주황, 검정이 순차적으로 배치되면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듯한 패턴으로 시각적인 대비를 나타내어 데포르마시옹의 기형적인 특성을 응용하여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그림 32>는 게이샤의 하얀 얼굴을 적용 하고 한 쪽 아이 홀에 붉은 선, 볼 위에 작은 붉은 점, 각지고 선명한 붉은 입술로 강한 색상 대비를 이루며 일본의 특징을 단순화하여 현대적으로 표현<sup>103)</sup>한 것으로 보여진다.

---

100) 윤민희(2008), op. cit., pp.100-101.

101) 김문경(2004), op. cit., p.13.

102) Meyer Schapiro (1991), 빈센트 반 고흐, 서울: 중앙출판사, p.44.

103) 김현진(2014), op. cit., p.47.



<그림 21> 제임스 앙소르  
 「가면으로 둘러싸인 예술가의 초상」, 1889  
 (<https://blog.aladin.co.kr>)  
 (검색일.2015.10.1.)



<그림 22> 페르난도 보테로  
 「콜롬비아의 밤」, 1980  
 (<http://artemazeh.blogspot.kr>)  
 (검색일.2015.10.1.)



<그림 23> 바디에 표현된 강조 1.  
 Boudicca Christian Dior  
 2003, S/S



<그림 24> 바디에 표현된 강조 2.  
 (WWW.bodypainting-Festival.com)  
 (검색일.2015.10.1.)



<그림 25> 앙리 리비에르  
 「우산쓰고 쓰고 가는 장례식」,  
 1895  
 (조형의 원리, p.76)



<그림 26> Balthasar Neumann  
 「뷔르츠 부르그 ,레지덴트 코트 교회  
 내부」 1732~1744  
 (조형의 원리, p.81)



<그림 27> 바디에 표현된 균형 1,  
 (http://blog.daum.net/limbk119/1720  
 8634)  
 (검색일.2015.10.15)



<그림 28> 바디에 표현된 균형 2.  
 (http://blog.naver.com/gtppa/2201174  
 79049)  
 (검색일.2015.10.15)



<그림 29> 마그크 샤갈

「나와 마을」, 1911

(그림 영혼의 부딪힘, 2014, p.328)



<그림 30> 빈센트 반 고흐

「측백나무와 별과 길」, 1890

(<http://mission.bz/>)

(검색일.2015.12..1.)



<그림 31> 바디에 표현된 대비1.

Joanne Gair

「Face Painting」



<그림 32> 바디에 표현된 대비 2.

Yohji Yamamoto 2009 F/W

(IN BEAUTY)

### Ⅲ. 작품 제작

#### 1. 제작 의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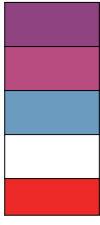
데포르마시옹은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나 조형미술에 따른 고의성이 바탕이 되고 비례와 위치를 변형하거나 왜곡한 것으로 의식적이며 계획적이어야 한다. 또한 데포르마시옹은 자연이나 사물을 묘사할 때 특정 부분 또는 전체를 강조 하거나 왜곡 시켜 모양을 바꾸는 것으로 대상의 형태를 고의적으로 나타내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포르마시옹의 특성에 따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과장, 단순화, 왜곡이 바디아트와 밀접하고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데포르마시옹이 드러난 현대회화의 고흐 몽크 피카소의 그림으로 디자인 구성 원리를 바디아트의 디자인 요소인 강조, 대비, 비례를 적절히 접목시켜 총 5작품의 바디아트 작품을 도출하게 되었다.

작품 I은 ‘단순화’, 작품 II는 ‘왜곡’ 그리고 작품 III은 ‘단순화’을 응용하여 페이스 페인팅 작품을 제작하였고, 작품 IV‘왜곡’, V은 ‘과장, 단순화’를 응용하여 바디 페인팅을 제작하였다.

데포르마시옹의 응용하여 현대 회화에 적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데포르마시옹의 응용하여 현대회화에 적용한 작품 디자인 계획

구분 분류	데포르마시옹 특성	모티브	재료	색채	일러스트
작품 I	단순화		수성물감 피그먼트 투명 립 글로즈		
작품 II	왜곡		수성물감 밀가루 포스트물감		
작품 III	과장		수성 베이스 크림파운데이션 아트마스크		
작품 IV	왜곡		수성물감 크림파운데이션		
작품 V	과장, 단순화		수성물감 크림파운데이션 검정색지		

## 2. 작품 제작

### 1) 작품 I

#### (1) 작품 설명

작품 I 은 파블로 피카소의 회화 중 아비뇰의 처녀들의 작품으로 <표 2> 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표현하였다.

데포르마시옹의 단순화 특성을 균형감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뇰 처녀들의 작품에서처럼 얼굴을 분할하여 단순화를 극대화 시키며 색채사용을 줄이고 심리적으로 엄격하고 극대화된 표현방법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 있는 단순화를 표현하기 위해 얼굴의 코의 선을 따라서 분리하고 채색의 부분은 검정과 흰색 회색으로 최소한 절제 하며 강조하였다.

#### (2) 제작 방법

작품 I 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을 사용하여 얼굴의 곡선을 따라 전체적인 형태감과 균형을 고려하여 도안을 디자인한다.
- ② 전체적인 형태감과 색상의 대비와 조화를 확인하며 페인팅을 한다.
- ③ 브러쉬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느낌이 거친 느낌이 부각되게 표현한다.
- ④ 전체적인 페인팅이 마무리가 되면 투명 립글로즈를 사용하여 실버 피그먼트를 부분적으로 올려주며 입체감을 표현한다.

<표 2> 작품 I 의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작품 디자인 요소	단순화
구성 형태	균형
재료	수성물감, 피그먼트, 투명 립글로즈
컬러	



<그림 33> 작품 I

## 2) 작품 II

### (1) 작품 설명

작품 II는 빈센트 반 고흐 회화 중 「별이 빛나는 밤에」를 모티브로 하여 <표 3>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표현하였다.

테포르마시옹의 왜곡의 특성과 대비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고흐의 작품에 표현된 우뚝 솟은 탑과 요동치는 구름, 회오리치는 듯한 달 등은 검정과 남색의 어두운 색상과 노란색과 흰색의 밝은 색상의 대비를 통해 화려함과 다채로운 울동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왜곡과 색상의 대비를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밀가루와 물을 사용하여 색상을 입혀 두꺼운 느낌의 마티에르의 표현과 같이 부분적으로 바르고 마르는 과정을 반복하여 질감을 부각시켰다.

### (2) 제작 방법

작품II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큰 형태부터 도안을 디자인한다.
- ② 디자인의 중심부위를 검정, 파랑, 노랑, 연파랑, 흰색 등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페인팅 한다.
- ③ 전체적인 형태의 윤곽이 나타나면 붓을 사용하여서 부분적으로 뭉뚱함과 거친 부분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한다.
- ④ 밀가루와 물감을 섞어 색상과 질감이 부각될 수 있도록 표현한다.

<표 3> 작품 II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작품 디자인 요소	왜곡
구성 형태	색의 대비
재료	수성물감, 밀가루, 포스트물감
컬러	



<그림 34> 작품 II

## 2) 작품 III

### (1) 작품 설명

작품 III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꿈」을 모티브로 <표 4>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표현하였다.

데포르마시옹의 과장을 표현한 파블로 피카소의 꿈은 여성의 얼굴을 인체의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데포르마시옹의 과장의 특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내 주었다.



또한 원색으로 작품에서 표현된 빨강, 파랑, 초록, 검정, 흰색 등 다양한 색상들은 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체의 곡선을 부분적으로 세분화하고 파악하여 인체에 입체적으로 나타내며 제작하였다.

### (2) 제작 방법

작품 III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인체의 곡선을 이용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 하여 도안을 디자인한다.
- ② 도안을 디자인 한 후, 전체적인 윤곽이 표현되면 색상의 밸런스를 고려하여 색을 칠한다.
- ③ 원색의 색감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하고 블랙 색상으로 선을 울동감 있게 표현한다.
- ④ 아트마스크를 제작 하여 신체에 부착한다.

<표 4> 작품 III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작품 디자인 요소	과장
구성 형태	입체감의 강조
재료	수성베이스, 크립 파운데이션, 아트마스크
컬러	



<그림 35> 작품 Ⅲ

## 2) 작품 IV

### (1) 작품 설명

작품 IV는 에드바르 드 몽크 회화 중 마돈나 작품으로 <표 5>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표현하였다.

테포르마시옹의 왜곡의 특성과 색감의 대비를 표현한 몽크의 「마돈나」는 여성의 죽음과 섹슈얼을 연관시키면서 얼굴을 정면으로 그리지 않고 비틀린 얼굴형은 왜곡 적으로 표현하고 사랑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나타내었다.

또한 색감의 대비를 이용하여 여성 주변을 휘감는 검정색상의 붓질은 강렬하고 폭풍 같은 내면을 드러내어 표현하였다.

### (2) 제작 방법

작품IV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디페인팅용 화이트 펜슬로 바디에 얼굴 골격을 따라 면적을 분할 한다.
- ② 수성물감을 사용하여 골격에 따라 색상과 명도의 대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채색한다.
- ③ 채색시 브러시의 느낌과 색감이 잘 어울릴 수 있게 부분적으로 포인트 색상을 터치해준다.
- ④ 전체적인 색감과 형태를 확인 후 얼굴 또한 바디의 느낌과 같이 터치해준다.

<표 5> 작품 IV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작품 디자인 요소	왜곡
구성 형태	색의 대비
재료	수성물감, 크림파운데이션
컬러	



<그림 36> 작품Ⅳ

## 2) 작품 V

### (1) 작품 설명

작품 V는 파블로 피카소 회화 중 Seated Woman with Wrist Watch 작품을 모티브를 재해석 한 것으로 <표 6>의 디자인 스케치와 같이 표현하였다.

테포르마시옹의 과장과 단순화의 특성과 특정부분을 강조되게 표현한 파블로 피카소 「Seated Woman with Wrist Watch」의 모티브를 재해석 하여서 눈을 단순화 하였고 신체의 흐름에 따라 입체적인 부분에 다양한 색상의 보라, 분홍, 파란색은 형태의 눈을 강조 시키고 얼굴의 일부분 중 입술 그려 넣으면서 밸런스가 잘 맞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오브제를 전체적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눈의 입체감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가슴부위에 부착하여 과장을 효과를 극대화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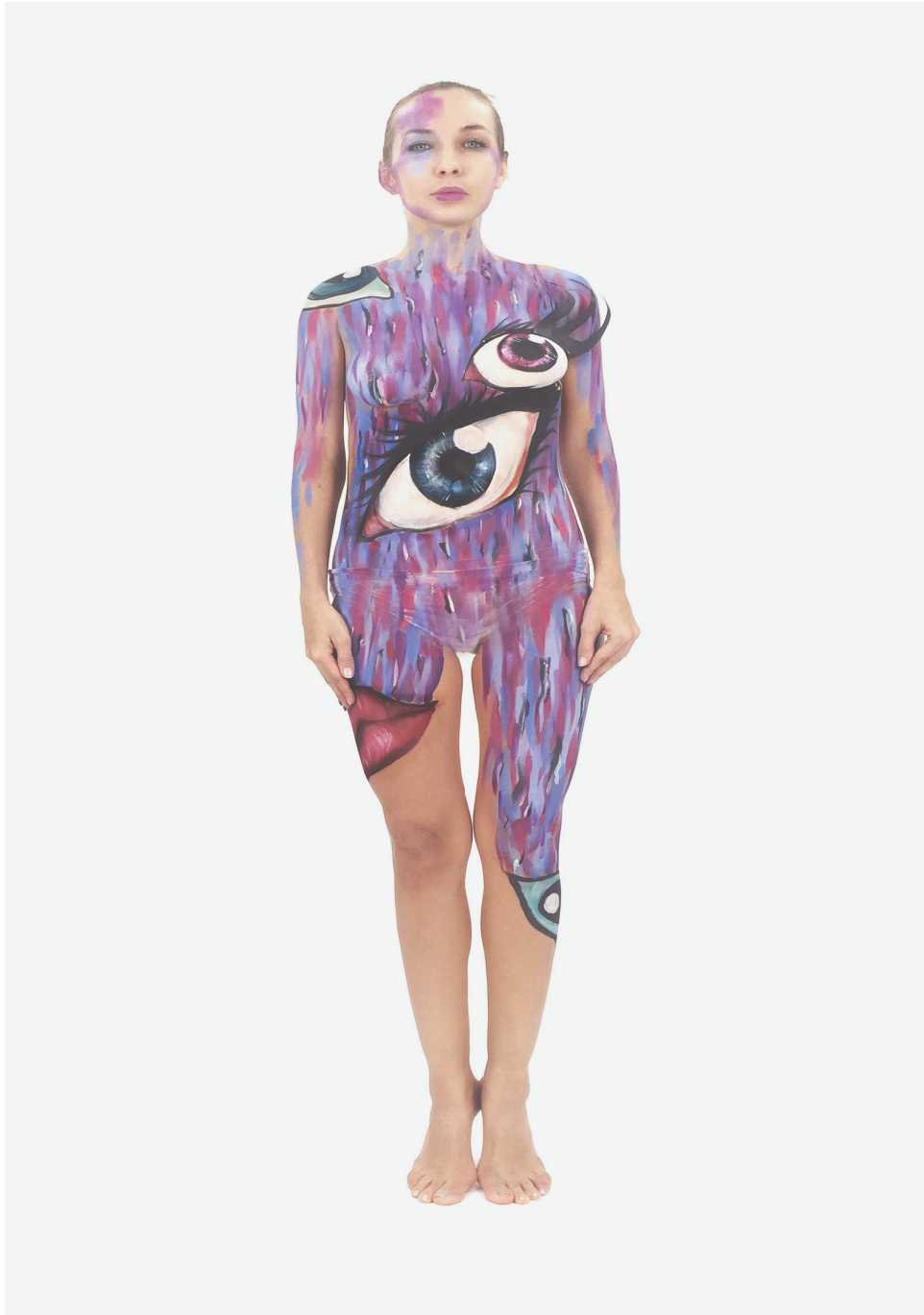
### (2) 제작 방법

작품 V의 세부적인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바디페인팅용 흰색 펜슬로 과장의 효과가 잘 들어 날수 있게 눈과 입술을 디자인 한다.
- ② 색상이 잘 어울리고 부각될 수 있도록 배색하여 채색한다.
- ③ 눈과 입술을 제외한 전신은 직선적인 느낌을 브러쉬의 크기와 색상을 다르게 쓰면서 색상이 겹치되 하나하나의 색감이 보일 수 있도록 채색하여 준다.
- ④ 속눈썹을 강조할 검정 색지를 잘라 오브제를 사용하여 부착시켜준다.

<표 5> 작품 IV - 디자인 이미지

디자인 이미지	
	
구성	내용
작품 디자인 요소	과장, 단순화
구성 형태	강조
재료	수성물감, 크립파운데이션, 검정색지
컬러	



<그림 37> 작품 V

## IV. 결 론

본 연구는 데포르마시옹의 기본개념을 구체화하고 과장, 단순화, 왜곡으로 정립하며 데포르마시옹의 특성을 현대 회화에서의 대표 작가를 선정하여 작품을 분석하여 재구성과 응용을 통한 바디아트 디자인 작품으로 제작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바디아트 디자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며, 바디아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예술로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조형 예술로서 바디아트의 영역과 장르를 확대하고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포르마시옹은 작가들의 작품을 특정부분을 강조하거나 왜곡하며 변형시켜 나타내어주며 그 특성을 과장, 단순화, 왜곡을 3개의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구분 할 수 있었다. 데포르마시옹에서의 과장은 의도적으로 대상의 균형과 질서를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비례감과 입체감을 통해 형태를 과격적으로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장점으로 보는 이들에 시각적인 집중력을 강조하며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알 수 있었다.

데포르마시옹의 단순화는 사물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주로 사물의 구성요소들을 생략하거나 축소시켜 최소화된 기본적인 기하학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색상과 오브제를 최소화하면서 간결한 표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하며 오직 작가의 고의적인 의도에 의한 시각적인 단순화를 의미 한다.

데포르마시옹의 왜곡은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가리키며 사물이나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비정상적이고 부조화되게 표현하는 것이다. 주로 특정 부위의 생략이나 반복, 디자인인 요소의 위치나 형태의 기능

변경, 부분과 부분을 모순되게 결합하는 등 기형화된 형태로 표현되며 대상을 이질적인 요소와 대립시키거나 다양한 이미지를 차용하여 해체시키고 조합하는 탈구성적 형태로 나타내어 주었다.

둘째, 데포르마시옹의 특성은 현대 회화에 있어서 광범위 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포르마시옹의 특성과 그에 부합한 현대회화에 부각된 대표 작가는 빈센트 반고흐, 에드바르 드 몽크, 파블로 피카소를 구분하였다.

빈센트 반고흐의 데포르마시옹의 특징은 격렬한 붓질과 강렬한 색채 표현 그리고 왜곡된 형태를 특징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에드바르드 몽크의 데포르마시옹의 특징은 극단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왜곡되고 과장된 형태와 색채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파블로 피카소의 데포르마시옹의 특징은 직선의 대담한 응용에 의해 요약적으로 표현하고 여러 가지 원색을 칠하여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바디아트의 디자인 구성원리의 유형을 데포르마시옹의 특성과 부합하고 상호관계인 강조, 균형, 대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데포르마시옹의 특성을 분석하여 페이스 페인팅 2점, 바디페인팅 3점, 총 5점의 바디 아트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I은 파블로 피카소의 회화 중 아비뇽의 처녀들의 작품으로 데포르마시옹의 단순화 특성을 균형감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단순화를 엄격하고 심리적인 극대화를 표현하였다.

작품 II는 빈센트 반 고흐 회화 중 별이 빛나는 밤에 작품으로 데포르마시옹의 왜곡의 특성과 대비감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어둡고 밝은 색의 대비를 통해 화려함과 다채로운 울동감을 부각시켰다.

작품 III은 파블로 피카소 회화 중 꿈 작품으로 데포르마시옹의 단순화의 특성과 인체에 특성에 맞게 부분적으로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작품 IV는 에드바르 드 몽크 회화 중 마돈나 작품으로 데포르마시옹의 왜곡의 특성과 색감의 대비를 왜곡 적으로 표현하여 색감의 대비를 나타냈다.

작품 V는 파블로 피카소 회화 중 Seated Woman with Wrist Watch 작품을 데포르마시옹의 과장과 단순화의 특성과 특정부분을 강조되고 다양한 색감으로 과장과 단순화가 드러나도록 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데포르마시옹의 특성을 이용한 현대 회화는 적극적으로 즉흥적이며 자유롭게 나타나지만 작가들의 심리성과 철학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의도에 의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바디아트에 부합된 데포르마시옹은 흥미롭고 다양성 있는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와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데포르마시옹의 특성만을 고찰하고 데포르마시옹의 특성을 띤 한정적인 현대회화의 작가들을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므로 데포르마시옹이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특성과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바디아트가 연구자의 독단적인 시각예술로서 미술회화의 작품과 연구에 연관성을 지어 창의적인 시도와 연구에 밀받침이 되길 바란다.

## 참 고 문 헌

- cf. 세계미술문고, 「몽크」, 서울, 금성출판사, 1976.
- H. H.애너슨, 번역 김수기 외, 「현대미술의역사1」, 서울: 인터내셔널아트디자인, 1991.
- H.안나수, 「Vincent van Gogh-A Self-Portrait in Art and Letters」, 서울: 생각과 나무, 2007.
- Meyer Schapiro, 「빈센트 반 고흐」, 서울: 중앙출판사, 1991.
- P. Jose, 박순철 역, 「초현실주의」, 서울: 열화당, 1990.
- R.아른하임 외 1명, 김춘일역, 「미술과 시지각」, 서울: 홍성사, 1982.
- Strickland, Carol, 김호경역, 「서양미술사」, 서울: 예경, 2001.
- 권경숙, 「Not I 와 오브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문경, 「데포르메 기법을 이용한 도자설치 작품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미정, 「바디아트 마티에르(Matiere)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촉각질감 표현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민아. 「빈센트 반 고흐 회화 이미지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 김소형, 「조형원리에 따른 패션쇼 무대디자인의 공간구성 표현특성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수진, 「데포르메기법을 이용한 인체변형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양은 외 3인, 「ART-MAKE-UP」, 서울: 광문각, 2009.
- 김영나, 「서양 현대미술의 기원」, 서울: 시공사, 1996.

- 김영숙, 김영숙, 「오브제를 응용한 아트메이크업의 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원방, 「잔혹극 속의 현대 미술」. 서울: 예경, 1998.
- 김은정, 박옥현, 「2000년 이후 예술 의상 작품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과 조형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2(2). 2012.
- 김지미, 「피카소 작품을 주제로 한 의상디자인 -도예에 나타난 그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김현진, 「미메시스 개념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김화영, 「데포르마시옹을 통한 인체표현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효영, 「아메데오 모델리니 회화연구 인체의 데포르마시옹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데이비드A.라우어 외 1명, 이대일역, 「조형의 원리」, 서울: 예경, 2002.
- 도서출판 승례문 편집국 편, 「미술사전1」, 서울: 도서출판 승례문, 1991.
- 민선식, 「엘리트 국어사전」, 서울: YBM, 2010.
- 문정은, 「바디아트의 표현적 특성과 형태 연구, 지역 특성과 시대변화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성봉, 「대중예술의 이론들」 서울: 동연, 1994.
- 박연도 「Deform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64.
- 서승미, 「현대예술의상에표현된데포르마송이미지복식」, 한국복식학회, 2005.
- 서현호, 「표현주의적 회화의 특성과 표현방식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 성낙양, 「동아 참 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2012.
- 신현숙, 「초현실주의」 서울: 동아출판사, 1992.

- 안나현, 「디자인원리를 적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감성이미지 표현」, 서경대학교대학원미용예술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안연희, 「현대미술사전」, 서울: 미진사, 1999.
- 월간미술 편집국 편, 「세계미술용어 사전, 서울: 월간미술, 1998.
- 양철우, 「새 국어사전」, 서울: 교학사, 2015
- 위수연, 「피카소의 작품을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윤민희, 「새로운 조형예술의 이해」, 서울: 예경, 2008.
- 윤영범, 「사진, 회화, 그래픽디자인의 이미지 구성과 데포르마시옹3」,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이기열, 「현대패션의 과장된 인체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연구 8(1), 2007.
- 이윤우, 「현대조각에 있어서 Déformation에 관한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4.
- 이윤진, 박명희 (2003), 「현대의상에 나타난 유머성」, 한국복식학회, 53(5), 2003.
- 이인자, 「복식 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1988.
- 이자벨 쿨, 「Van Gogh-반 고흐가 말하는 반 고흐의 삶과 예술」, 서울: 도서출판 예경, 2007.
- 이정숙, 「디지털 건축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공간 특성」,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정숙, 윤재은, 「디지털건축에 나타난 데포르마시옹 공간특성」, 한국기초조형학 연구 9(5), 2008.
- 이지연, 조진숙, 「모스키노 컬렉션에 표현된 데포르마시옹에 관한 연구-2006~2010년의 Collection을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 19(3), 2011.

- 이진, 「빈센트 반 고흐작품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이효진, 「세기말 서양복식에 표현된 Deformation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50(3), 2000.
- 월간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서울: 월간미술, 1996.
- 정계옥, 「파블로 피카소의 회화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정미희, 「독일 표현주의 미술」, 서울: 일지사, 1990.
- 정은미, 「화가는 왜 여자를 그리는가」, 서울: 한길아트, 2002.
- 정은주, 「조형적 원리에 의한 웹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조은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된 바디아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경옥, 「아르누보 문양 이미지를 응용한 바디 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최미라,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추 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태동숙, 「투명성을 응용한 바디아트 표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갑수, 「국어대사전」. 서울: 교육출판공사, 1999.
- 한명숙, 「바디아트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ABSTRACT

Create the Body Art works with application of the D'eformation

**Kim, Bo Ra**

**Make-up and Special effect Major**

**The Graduate School Convergence Design and Art**

**Sungshin Women's University**

Rapid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of today provides human life with prosperity and abundance by breaking the frame of traditional concept of the past that had been isolated and locked, accordingly, modern society creates and establishes a new formative view, and has a significance in social meaning which creates art that represents a new period in a wide meaning.

The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can express new creativity through formation, intentionally emphasis, satirical exaggeration, and subjective distortion of art work for artist's formative emotion express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create the body art work through grafting between body art' design theorem and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and representative modern arts.

As the research result, this research divided into three types, i.e. exaggeration, simplification, and distortion through the conside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and classified the representative

artists in modern painting as Vincent van Gogh, Edvard Munch, and Pablo Picasso. Based on this, the researcher planned total 5 body art design, i.e. 2 pieces of face painting, 3 pieces of body painting and produced works. Also, the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expressed in body art were classified into emphasis, balance, and contrast.

Work I expressed simplification characteristics of D'eformation in balance, which intended to express simplification strictly through maximizing psychologically.

Work II expressed characteristic and contrast of distortion of D'eformation,

which intended to express splendor and diversified rhythmic sense through contrast of dark and bright color.

Work III expressed by partly emphasizing proper for the characteristic of simplification of D'eformation and human body.

Work IV expressed contrast of color sense by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 of distortion of D'eformation and contrast of color sense in a distorting way.

Work V emphasized exaggeration of D'eformation, characteristic of simplification, and specific part, and expressed to reveal exaggeration and simplification with various color sense.

Here, this research could suggest a possibility of diversified design and free expression of body art by applying D'e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works of D'eformation to body art, which appeared in modern painting, also, the researcher expects development of body art in art field through wide and convergent researches, henceforth.